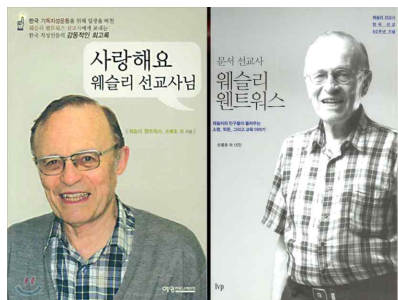


1. 기독교적 학문 운동의 시작

한국에서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1965년 이래 지금까지 한국에서 문서선교사로서 사역하고 있는 원이삼(Wesley John Wentworth, Jr., 1935-) 선교사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¹⁾ 그리고 한국에서 기독교적 학문 운동은 1980년대 초에 시작된 기독교 세계관 운동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²⁾ 기독교 세계관 운동과 기독교적 학문 운동이 동시에 시작된 데는 기독교 세계관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원이삼 선교사의 부족한 한국어 실력이 일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원 선교사는 일차적으로 주로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대학원 학생들과 젊은 교수들을 찾아다녔고, 이들의 주요 관심사는 학문이었다. 또한 당시에는 원 선교사가 보급하던 대부분의 세계관 문헌들이 영어 문헌이었다. 아직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영어 문헌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접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웠다.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학문활동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조망이 시작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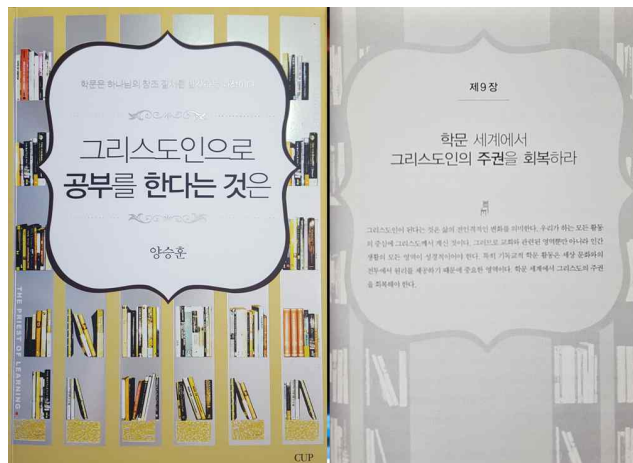
이처럼 한국에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기독교적 학문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의 이름이 기독교세계관연구회가 아닌, 기독교학문연구회였던 것이다. 이것은 2002년을 전후하여 몇몇 사람들이 [복음과 상황] 등을 통해 한국에서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지나치게 현학적이고 이론적이라는, 공부만 하고 있다는, 그래서 식자들의 운동이라는 비판을 하게 된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³⁾

1) 한국에서 웨슬리 선교사의 사역에 대해서는 다음 두 권의 책으로 소개되었다: 손봉호 외, 『사랑해요 웨슬리 선교사님』 (예영, 2004); 손봉호 외, 『문서 선교사 웨슬리 웨트워스』 (IVP, 2015).
2) 한국에서의 세계관 운동의 전말을 위해서는 양승훈, “한국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회고와 전망,” 『통합연구』 20(1): 9-34 (2018.5.) 참고.
3) 예를 들면 「복음과상황」에 실린 박충, “기독교세계관을 확 떼어고쳐라”(2002.2.), 양희송, “기독교세계관-답론, 운동,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세계관적 조망을 다룬 영어문헌들이 우리말로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배경의 독자들이 세계관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기독교적 학문 연구, 즉 학문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 혹은 학문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조망도 처음에는 신학이나 철학, 역사 등 일부 인문학 분야에 머물렀지만 오래지 않아 다양한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예술 등으로 확장되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주축은 여전히 기독교적 학문 운동이었지만 세계관 운동은 학자들의 범위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젊고 지적인 목회자들, 젊은 교사들, 심지어 학부 학생들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교사들은 어떻게 하면 기독교 세계관적 교육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8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던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경계를 교회와 사회에까지 확산시키는 한 예가 되었다.

본 발표에서 필자는 한국에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시작할 때부터 고민해 오던 기독교적 학문함, 즉 학문활동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조망의 의미를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역사와 더불어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자 한다. 특히 필자가 물리학도에서 출발하여 역사와 신학 등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지난 40여 년 동안 간학문적(interdisciplinary), 다학문적(multidisciplinary) 특성이 강한 창조론 운동에 참여하면서 고민했던 기독교적 학문함에 대한 실천적이고도 개인적인 소회를 나누고자 한다. 참고로 본 강연의 내용은 필자의 『그리스도인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은』(2009) 제9장 “학문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회복하라”를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먼저 그리스도인 됨의 의미에서 시작하여 문화적 활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학문활동에 있어서 기독교적 조망의 필요를 살펴본다.

혹은 논란(1)(2)”(2002.3-4), 정정훈, “환상 속에 ‘기세’가 있다”(2002.3.), “기독교 세계관을 고개들게 하라”(2002.3.), “기독교세계관 멀리서 넓게 보기”(2002.4.), 김종희, 양세진, 이진오, 황병구, “당신들의 세계관이 무엇인지 궁금하다”(2002.5.), 박충, 양희승, 정정훈, 이원석, “기독교세계관, 과연 실천만 남았는가?”(2002.6.), 김기현, “다시 생각해보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2002.10.), 신국원, “세계관은 안경이다”(2002.8.) 등.

2. 그리스도인 됨의 의미와 기독교적 학문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의지적 결단을 포함하는 말이긴 하지만 이것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학문적 이론이나 사상, 주장, 이데올로기 등을 받아들이기로 결단 내리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예수를 믿는 것은 자신의 전 존재와 인식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며 전 인격적인 변화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⁴⁾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신분이나 자격에 추가된 또 하나의 신분이나 자격이 될 수 없다. 즉 '나는 한 아내의 남편이며, 네 아이의 아버지이며, 테니스와 탁구를 즐기는 사람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을 설명할 수 없다.

오래 전에 한국을 방문한 바 있는 허만(Kenneth Hermann) 교수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성경적 견해는 우리가 인간이 된다는 말과 동등한 표현이다.⁵⁾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부름은 우리의 여러 가지 생활 영역에 첨가된 또 하나의 영역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몸과 마음과 영혼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셨으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신의 전 존재와 행하는 모든 일을 대표하고 규정하며 특징지워야 한다.⁶⁾ 자신의 인간됨(person-ness)이 자신의 모든 일을 특징짓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행위를 특징짓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첨가되는 또 하나의 신분이 아니라 인간됨과 같은 의미의 것이라면 당연히 그리스도인 됨을 특징짓는 행위는 성경공부, 예배, 전도, 헌금, 설교 등의 영역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직장생활, 취미생활, 가정생활, 학문활동 등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도 나타나야 한다. 바울 사도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10:31)고 권면한 것은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일이나 그 외 무슨 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으며 또한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무엇을 하든지’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모든 문화적 활동이 포함되며 문화적 활동의 중심으로서 학문적 활동도 당연히 포함된다. 학문 활동은 모든 문화적 활동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기독교적 학문 활동은 세상 문화와의 전투에서 원리를 제공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가 인본주의와의 전투에서 영예롭게 임하고 승리의 소망을 가지려면 “원리를 이길 원리”(beginsel tegen beginsel)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한 바와 같이 세상 문화와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문화의 원리를 만드는 학문 활동에서 승리해야 한다.⁷⁾ 그래서 일찍이 웨스터민스터신학교를 설립한 변증학자이자 신약학자인 그레삼 메이첸

4) 대표적인 성경구절로는 고후5:17; 갈2:20을 보라.

5) 1996년 6월 4일 경북대 기독교학회 초청으로 행한 “The Christian Scholarship”이란 강연. 이 내용은 Kenneth W. Hermann, 『The Meaning of a Christian Academic Perspective』 The Mennonite General Conference (1981.6.)에서 행한 강의로서 한국에서는 『기독교신앙과 전공과목』 (IVP, 1986) 제4장에 번역되어 있다.

6) 예수께서 마22:37; 막12:30; 눅10:27 등에서 말씀하신 바를 보라.

7) Abraham Kuyper, 『Calvinism Christianity as a Life-system』 (Christian Study Center, 1980); 필자는 여기서 단순한

(John Gresham Machen, 1881-1937)은 오늘날 기독교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학문과 신앙의 관계, 즉 기독교적 학문의 문제라고 했다.⁸⁾ 그렇다면 기독교적 학문 혹은 기독교적 학문활동이란 무엇이며, 학문을 하는 기독교학자들의 사명은 무엇일까?



카이퍼(좌)와 메이첸

3. 기독교적 학문과 기독교학자들의 사명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크게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다. 하나는 우리에게 익숙한 전도/선교 명령이다.⁹⁾ 흔히 대위임령(至上命令, The Great Commission)으로 알려진 전도/선교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지역교회에서나 기타 기독교 단체에서 이미 충분히 강조되고 있다.¹⁰⁾

다른 하나는 흔히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문화명령(The Cultural Mandate) 혹은 창조명령(The Creation Mandate)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변증학자이자 칼빈주의 문화이론가인 스킬더(Klaas Schilder, 1890-1952)는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며 그 모든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는 만물을 완성한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세상과 더불어(with) 있고 세상 안에(in) 있기 때문이다. ‘여기’와 ‘지금’은 결국 문화의 세계이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시고 그 문화를 거룩하게 한다.”고 했다.¹¹⁾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문화를 거룩하게 하는 작업은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Imago Dei)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창 1:26,27) 이들에게 자신이 만든 세계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청지기가 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창1:28).

문화의 원리로 인용했지만 원래 카이퍼가 여기서 말한 원리는 칼빈주의 원리였다.

8) G. Machen, "Christianity and Culture" in 『The Princeton Theological Review』 (1913.1)

9) 예를 들면 마9:38; 28:19,20; 행1:8; 딤후4:2; 사6:8 등을 보라.

10) 전 공주대학 교육학과 이창국 교수 등은 마태복음 28:19-20의 말씀을 선교명령이 아닌, 교육명령이라고 보기도 한다: 개블라인, 『신본주의 교육』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11) Klaas Schilder, 『Jezus Christus en het Cultuurleven』 (Colemborg, Netherlands: Uitgeversbedrijf De Pauw, 1932) pp.250-7; 정성구, 『칼빈主義 思想大系』 (총신대학출판부, 1995) 300면에서 재인용하였다.



CHRIST & CULTURE

Annotated by Jochem Douma

Klaas Schilder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 부름 받았다는 것은 학문적 소명과 연결된다. 창조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청지기적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창조세계란 눈에 보이는 세계 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논리적, 심미적 세계, 인간의 내면, 사회구조, 예술의 영역까지 포함한다.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대한 청지기적 소명은 좁게는 기독교학자, 즉 학문의 제사장으로서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향한 것이지만 넓게는 그리스도인 됨의 의미와 직결되어 있는 말이다.

전도명령과 문화명령을 두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하다고 얘기하긴 어렵다. 1980년, 레바논 학자이며 유엔 사무총장(1958-1959)을 역임했던 말리크(Charles Habib Malik, 1906-1987)는 미국 위튼대학 캠퍼스에 있는 빌리 그래함 센터(Billy Graham Center) 봉헌식에서 연설하면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그리스도인 학자들은) 두 가지 사명, 즉 "영혼을 구하는 일"(save the soul)과 "지성을 구하는 일"(save the mind)이 있다고 했다.¹²⁾ 그는 학문의 세계에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학문적 수준에서 변증하는 법을 배워야한다고 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사고의 수준을 높이고, 이를 위해 우리의 지성을 날카롭게 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특히 동료 학자들과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학문과 기독교 신앙을 통합하고 지적인 신앙을 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¹³⁾



말리크와 위튼대학의 빌리 그래함 센터

말리크는 전도명령과 문화명령의 관계와 균형의 중요함을 잘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12) Charles Malik, 『The Two Tasks』 (Crossway Books, 1980).

13) William Lane Craig, Paul M. Gould, Habib C. Malik, Charles Malik, Peter Kreeft, Walter L. Bradley, Robert Kaita, John North, 『The Two Tasks of the Christian Scholar: Redeeming the Soul, Redeeming the Mind』 (Crossway Books, 2007)

명령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하여 생각한다는 것은 어색하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 때문에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전도명령에 비해 문화명령은 인간타락 이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점에서 좀 더 본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문화명령의 일부로서 기독교적 학문이란 무엇일까?

4. 기독교적 학문에 대한 오해들

먼저 기독교적 학문에 대한 오해들을 살펴보자. 아래에서는 헤르만의 몇 가지 지적을 중심으로 살펴본다.¹⁴⁾

첫째, 학문연구를 기독교적인 것으로 되게 하는 것은 그 연구의 주제라고 가정하는 견해가 있다. 예를 들면 예배나 미사 등을 위한 음악, 성경의 여러 장면이나 주제를 그리는 미술, 철학에서는 기독교 철학, 역사에서는 기독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회사나 유대사 등이다. 그러나 연구 주제를 따라 기독교적인지 여부를 결정한다면 필연적으로 학문적 이원론을 조장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유형적 지상교회와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된 주제만 기독교인들의 연구 대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극히 일부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된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제한된 영역에서의 연구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제한은 교회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듯이 보이는 여타의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필연적으로 이교적인 이원론에 빠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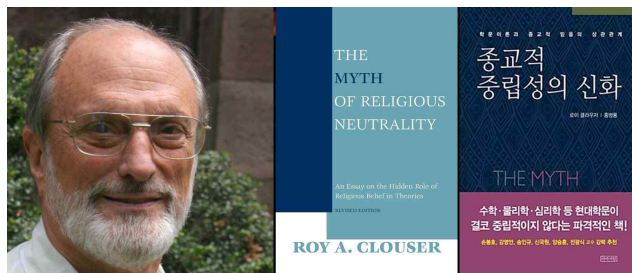
둘째, 학문과 신앙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다시 말해 “기독교와 무엇”이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다면 그 학문 연구는 기독교적인 것이 된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전자에 비해 다소 “기독교적”이라는 말의 범위를 넓히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원론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기독교와 생물학” 혹은 “기독교와 경영학”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와 학문 영역의 분리를 전제하는 것이며, 이러한 분리는 기독교 신앙을 윤리, 사회학, 물리학 등과 동격으로 취급될 때만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다소 현학적으로 들리기는 하지만 ‘기독교적 학문’은 정당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독교와 000’이라는 견해는 학문의 객관성과 이성의 자율성을 가정한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기독교와 과학이라고 하는 표현은 과학은 중립적이며 객관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영역 내에서 자율적일 수 있으며 종교는 그 나름대로의 신앙적 방법을 자유로이 따를 수 있다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는 듯이 보인다. 일반화 한다면 이는 이성으로부터 신앙의 영향을, 과학으로부터 계시의 영향을, 지식으로부터 믿음의 영향을 제거시킴으로써 혹은 제거시킬 때 진정한 학문이

14) Hermann, 『기독교신앙과 전공과목』, 58-70면.

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과학과 종교는 각각 자기의 정당한 영역을 지키며 상대방에게 간섭해서는 안 되고 또한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학문과 종교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다는 가정은 창조질서와 창조세계에 대한 왜곡이라고 할 수 있다. 근래에는 세속 학자들조차 연구 그 자체가 이미 연구 이외의 믿음의 체계, 이데올로기, 개인의 신앙 등에 의해 방향이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심지어 과학적 연구조차도 전통적 이해와는 달리 가치로부터 자유롭거나(value-free) 중립적이지 아니며, 인간의 이성도 자율적이지 못하다.¹⁵⁾ 이성은 그 자체로서 활동력이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신앙 위에서만 활동하므로 이성의 자율성에 대한 가정은 일종의 환상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클라우저(Roy A. Clouser)가 『종교적 중립성의 신화』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¹⁶⁾



셋째, 학문적 연구의 결과가 기독교의 목표에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때에만 학문적 연구는 기독교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여기서의 전제는 모든 학문적 연구는 중립적이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만 그 가치가 좌우되므로 기독교적 목표를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면 기독교적인 연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기본적으로 학문적 연구의 가치중립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문제에 직면한다 이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학문적 사실과 종교적 가치의 분리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창조과학에서 그런 모습을 찾을 수도 있다. 성경적 창조신앙의 변증에만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과학적 사실들보다 더 기독교적이 될 수 있다는 견해는 비슷한 오류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다. 창조신앙을 변증할 수만 있다면 과학적 사실과 배치되는 것조차 문제 삼지 않는 태도는 기독교적이라고 볼 수 없다. 명시적으로 신앙을 변증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과학적 연구가 귀중하기는 하지만 언뜻 보기에 신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듯이 보이는 과학적 연구도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연구하는 일반적 학문의 한 분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15) 20세기 새로운 과학철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Karl Popper, Norwood Russell Hanson, Michael Polanyi, Thomas S. Kuhn, Paul K. Feyerabend 등은 과학연구가 전통적 이해와는 달리 가치중립적이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고 있다. 최근 이들의 사상을 알기 쉽게 소개한 책으로는 A. F. Chalmers가 지은 『현대의 과학철학』 (What is this thing called science?) (서광사)을 보라.

16) Roy A. Clouser, 『The Myth of Religious Neutrality: An Essay on the Hidden Role of Religious Belief in Theories』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05) - 한국어판: 홍병룡 역, 『종교적 중립성의 신화』 (아바서원, 2017).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불러 학문을 하게 하신 것은 직접적인 복음화 전략 혹은 복음의 변증으로서 뿐 아니라 그 학문영역에서 연구를 해 나가는 것 자체가 앞에서 언급한 문화적 사명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학문이란 종교적 냄새가 풍기는 몇몇 학과, 주제들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학과, 모든 주제에 관련된다. 원론적이고 이론적이지만 성령의 조명, 성결의 빛은 어떤 특정 학문분야에 제한될 수 없으며 모든 분야에 비추어져야 한다.

5. 기독교적 학문의 필요성

앞에서 기독교적 학문이 종교적 냄새가 나는 삶의 어떤 특정한 부분에만 제한되거나 종교적, 신학적, 윤리 도덕적 차원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했다. 그러면 왜 학문에 있어서 기독교적 조망이 필요한가?¹⁷⁾

학문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발전시키는 것은 적극적인 측면에서 블레마이어스(Harry Blamires)가 소위 “기독교적 지성”(Christian mind)이라고 부른 것을 확장, 발전시킴으로 계몽시대 이래로 세속세계에 주도권을 넘겨준 학문 분야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탈환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¹⁸⁾ 기독교적 학문은 기독교적 지성, 기독교적 사유, 나아가 성경적인 행동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극적인 측면에서 기독교적 학문연구는 세속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고 세속사상으로부터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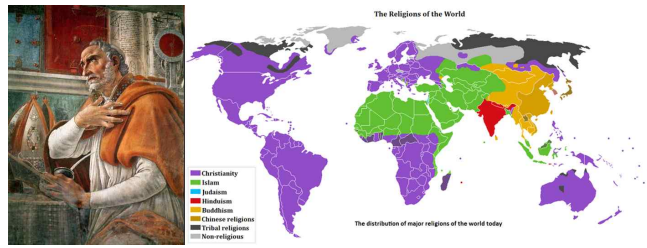
그렇다면 왜 기독교적 지성의 근거가 되는 기독교적 학문이 그렇게 중요할까? 아래에서는 헤르만(Kenneth Hermann)이 지적하는 바 인간의 본성에 대한 몇 가지 성경적 근거로부터 기독교적 학문의 필요성을 살펴본다.¹⁹⁾

첫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긴다. 이것은 어거스틴(Augustine of Hippo, 354-430)이 말한 소위 “종교적 집중”(religious concentration) 원리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자신을 초월한 어떤 것에 대한 신앙을 갖는다. 사도 바울도 인간의 경배대상은 창조주가 아니면 창조물의 어떤 측면(피조물)이라고 말했다(롬8:18-22). 모든 인간은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어떤 견해 즉, 세계관(world view)을 가지고 자신의 주위세계를 바라보게 된다. 세계관은 논리적이거나보다 다분히 신앙고백적인 특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뿐 아니라 대학의 강의실에서도 어느 정도 신앙고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잘못된 신앙은 피조물을 창조주의 자리에까지 격상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이다. 합리주의로부터 막시즘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의 절대화의 기원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에서 이런 우상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학문에 대한 올바른 기독교적 조망을 위한 선결 문제이다.

17) 세계관과 학문의 관계를 자세히 다룬 책으로는 전광식, 『학문의 숲길을 걷는 기쁨』 (CUP, 1998)을 들 수 있다.

18) Harry Blamires, 『The Christian Mind』, (S.P.C.K., 1963).

19) Hermann, 『기독교 신앙과 전공과목』, 71-7면.



둘째, 사람은 자기들이 섬기는 대상에 따라 자기를 형성해 간다. 즉, 인간은 자기가 경배하는 대상을 닮아 간다. 마찬가지로 학문을 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섬기며 경배하는 대상을 따라 형성되어 간다. 한 예로 철학을 생각해 보자. 철학 자체의 뿌리는 철학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철학도 보다 근본적인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철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니면 어떤 피조물을 향한 신앙적 결단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실용주의 철학, 칸트 철학이 있고 하나님께 근거한 기독교 철학이 있는 것이다.

셋째, 학문연구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학문적 연구를 창조의 다양한 측면들을 연구하는 활동으로 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근본에 있어서 창조의 질서를 연구하지 않는 학문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창조를 연구하는 학문으로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천문학 등의 자연과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문과학, 사회과학도 여기에 포함된다. 인문과학, 사회과학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사회적 기구들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와 세상의 자원을 지키는 청지기가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의 또 다른 의미는 창조 속에는 사실을 추구하는 자연과학과 가치를 추구하는 인문과학 사이의 구분이 없다는 것이다. 그 구분은 연구대상이 창조 속의 사물들인가 추상적 개념인가에 따른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물질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논리의 세계까지 만드셨기 때문이다(골1:1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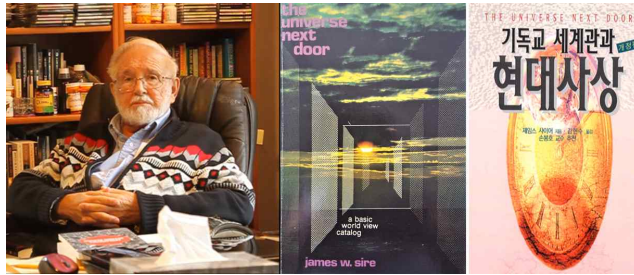
이상의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인간은 자기를 초월한 어떤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존재에 의해 자신의 모든 것, 학문 활동까지 지배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학문적 연구에 있어서 궁극적 한계는 연구의 주제나 형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학문 분야의 조망을 형성하는 개개인의 세계관에 의해 결정됨을 의미한다. 그러면 학문으로 하여금 기독교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준거틀(Reference frame)로서의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적 요소는 무엇인가?

6. 기독교적 학문연구의 기초로서 기독교 세계관

세계관은 그 정의부터 사람마다 의견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세계관의 범주에 어떤 것이 포함되어야 하는가도 사람마다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의 중심적인 뼈대로서 창조-타락-구속의 틀에 대해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동의하고 있다. 만물의 기원을 설명하는 창조는 원래의 창조 세계가 어떠했는지를 말해주고, 타락은 “보시기에 좋았던” 원래의 피조세계가 왜 오늘날과 같이 피폐하게 되었는지, 다시 말해 현실 세계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며, 구속은 기독교 세계관의 지향점을 보여준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이어(James W. Sire, 1933-2018)는 이러한 세계관의 기본적인 틀로부터 기독교적 학문 연구의 실제적 기초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제시한다. 사이어는 세계관이란 “이 세상의 근본적 구성에 대해 우리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견지하고 있는 일련의 전제나 가정들”이라고 정의하면서 이 세상의 근본적 구성 요소란 다음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은 이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하여 자연주의, 이신론, 허무주의, 실존주의, 동양 범신론 등의 세속적 세계관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대답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²⁰⁾



(1) 우주의 참된 최고의 실재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서 혹자는 물질, 여러 신들, 사물들 속에 깃들여 있는 신성 등 다양한 대답을 할 지 모르나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이 하나님은 여러 신들 가운데 있는 또 하나의 신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고 인격적, 초월적, 내재적 주권적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유지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다.

(2)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인간관의 질문에 대해 유물론적 세계관에서는 매우 정교한 전기 화학적 기계라고 한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래서 인격과 자기 초월성, 지성, 도덕성, 사회성, 창조성 등을 가진 존재라고 본다. 비록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훼손되었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 회복 가능한 존재라고 본다.

(3) 인간이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러한 사망관의 질문에 대해 혹자는 개체성과 인격의 소멸, 다른 형태로 탄생하기 위해 잠시 쉬는 단계 등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은 죽음이란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생명의 문이든지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는 사망의 문이든지 둘 중의 하나라고 본다.

(4) 도덕의 기초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혹자는 문화적, 육체적 생존을 향한 동력, 혹은 인간에 대한 긍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도덕은 초월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영원불변한 선한 속성이 세상의 모든 도덕적 기준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므로 상황윤리를 부정한다.

20) James W. Sire, 『The Universe Next Door: A Basic Worldview Catalog』 (IVP, 1976) - 한국어판: 김현수 역, 『기독교세계관과 현대사상』 (KIVP, 1985).

(5) 역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역사관의 질문에 대해 혹자는 지상낙원을 이룩해 나가는 과정, 신들의 계획을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 끝없이 순환하는 수레바퀴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에서 역사는 직선적인 것으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켜 나가는 의미 있는 사건들의 연속이라고 본다. 즉, 역사는 인간의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과 관심의 기록이며 하나님의 신적인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기독교적 학문은 무엇이며,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가? 기독교적 학문은 기독교적 세계관의 관점이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학문 이론의 전제나 토대, 학문의 내용, 연구결과의 응용, 학문의 방법이나 태도 등에서 반영되게 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작업이 구체적으로 학문활동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7. 기독교적 학문연구의 몇 가지 예들

이제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각 전공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몇몇 분야의 예를 살펴보자. 기독교적 조망이 요구되는 것은 모든 학문 분야지만 특히 기독교적 조망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몇 주제를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

(1) 역사 - 기독교적 역사관

역사학은 현재의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원리를 찾고 나아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과거를 의미 있게 재구성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역사의 연구에는 과거에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기술할 뿐만 아니라 왜 그것이 일어났는가를 설명하는 창의적인 과정도 포함하고, 때로는 미래를 예측하는 과정도 포함한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기술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역사는 과학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사건이 일어난 이유를 창의적으로 설명하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점에서는 예술적, 문학적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역사는 기독교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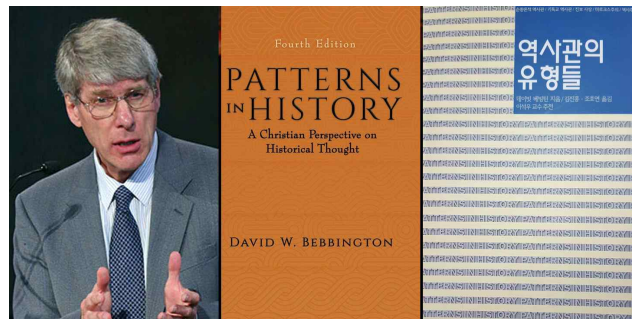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관은 일반 연구에서 파생된 이차적 요소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심장부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역사해석은 기독교 신앙과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개인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말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속에 포함된 역사관까지 받아들인다는 말이다. 이러한 기독교 역사관은 하나님의 계시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기독교적 역사해석은 기독교 학자들의 지적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철학적 사변이 아니라 기독교 계시가 드러낸 골격이요 의미이다. 기독교 역사관은 피조세계를 통한 자연계시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계시까지 포함하므로 기독교적 역사해석은 기독교 밖의 역사해석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세속 역사학에서는 신적 자기계시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인간의 추론과 시간 내적 경험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데 반해 기독교적 역사 해석은 신적 계시에서 출발하

21) Kamm, 『기독교신앙과 학문』, 22면.

로 인간의 추론과 시간 내적 경험의 한계를 초월한다.

기독교적 역사관은 아담의 범죄 이후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역사 속에 계획되는 하나님의 구속의지가 곧 역사의 동력이며, 구속 계획의 전개가 곧 역사의 구조를 형성한다. 따라서 기독교 역사관의 기초는 성육신이다. 성육신은 인류사의 분기점이며 역사 의미의 열쇠가 된다. 인류사는 인간의 창조와 함께 시작되어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성육신하심으로 절정에 이르며 예수님의 재림과 택한 자의 영화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고 할 수 있다.

영국 역사학자 베빙톤(David W. Bebbington, 1949-)에 의하면 구속사적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기독교 역사관은 크게 세 가지 특성을 갖는다.²²⁾ 즉, 신적 간섭(divine intervention), 방향성(directionality), 종말사상(eschatology)이 그것이다.²³⁾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실 뿐 아니라(히1:2) 친히 인간 역사에 간섭하셔서 인간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신다면 자연도, 역사도 있을 수 없다. 이러한 하나님의 간섭은 끝없이 반복되지 않고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된다.



이처럼 특정한 방향성을 가진 진행은 정해진 한 목표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목표에 도달하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 기독교 신앙은 그 자체가 종말론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역사도 종말론적 구조를 갖고 있다. 만일 종말론적 구조를 부인한다면 아무리 그럴 듯한 역사관이라도 기독교적이라 할 수 없다.

이러한 기독교적 역사관에 비해 기독교 밖의 역사관 즉, 고대 세계에 보편적이었던 주기적 역사관,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의 진보주의 역사관, 19세기 마르크스주의 역사관 등은 근본적인 역사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서부 유럽이 세계의 헤게모니를 잡기 시작하면서 생긴 진보주의의 역사관은 순수한 세속주의적 산물이 아니라 전통적 기독교 역사관이 세속화 된 것이기 때문에

22) David. W. Bebbington, 『Patterns in History』, IVP(1979) - 한국어 번역판, 이석우 역, 『역사관의 유형들』 (두란노서원, 1987). 본서에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관들을 알기 쉽게 잘 요약, 설명하고 있다.

23) Bebbington은 방향성 대신 선형성(linearity)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으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역사 진행의 유연성, 개방성 등을 고려하여 경직된 선형성이란 말보다 방향성이란 말이 더 자연스러운 듯하다.

기독교 내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 진보주의 역사관에서는 역사에 대한 통찰을 얻는데 신적 계시의 필요를 부인하고 역사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성의 빛만을 따라야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진보주의 역사관은 근대에 와서 자연과학의 눈부신 발달에 힘입어 더욱더 그 영향력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 가고 있다.

기독교 역사관이 소수파(minority) 의견으로 몰려 있는 현시점에서 기독교 역사학자는 일차적으로 역사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세우기 위해 진력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구속사적 측면에서 역사를 재조망하는 것을 포함하며 세계사의 통사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시대사나 지역사, 각 분야의 역사에서도 로드십(Lordship)을 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역사의 주관자가 무시되고 있는 세속 역사관의 결론에 대해 예언자적인 경고를 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개 어떤 사건에 대한 왜곡은 그 사건에 대한 역사의 왜곡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올바른 역사의 확립과 확산은 복음에 대한 크고 작은 왜곡으로부터 복음을 변증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2) 문학 - 무엇이 문학을 기독교적으로 만드는가?²⁴⁾

키엘케골(Søren Aabye Kierkegaard, 1813-1855)은 문학은 실존적으로 선과 진리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상상을 통해 거기에 접근하고자 하는 죄악이며 기독교적 견지에서 볼 때 시인의 존재는 죄악의 존재라고 말함으로 문학을 기독교 신앙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성경이 경험적이고 구체적인 인간의 이야기를 문학적 형식을 빌어 기록되었을 뿐 아니라 성경기자들이 문학과 문학가의 글을 인용하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기독교와 문학을 무관하다고 보는 것은 편견이다.²⁵⁾ 좀 더 나아가 인간경험을 그 내용으로 하는 문학(고전주의든, 낭만주의든, 모더니즘의 하나이든) 인간에 의해 인식, 평가, 경험되어지는 실체를 구상화하여 제공함으로써 복음 선포의 대상이 되는 인간 상황을 정확히 표현한다는 점에서 문학 그 자체에 대한 기독교적 의미와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훌륭한 문학은 인간 안에 있으며 상상을 통하여 현존하는 인간의 가치, 동경, 열망을 깊이 있게 보여준다. 그러므로 상상적 문학의 세계를 탐구하는 것은 물리적 세계를 탐구하는 것과 꼭 같이 하나님이 창조된 실체의 일부를 탐구하므로 인간의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에 필요한 것들을 발견해 낼 수 있다. 기독교인들은 문학적 상상의 세계를 지적, 윤리적으로 모두 다 승인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본성과 현실 세계의 창구로서 즉, 인간 내면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매체로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기독교 문학비평도 문학 속의 세계관을 분별하고 그 사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4) Leland Ryken, 『Triumphs of the Imagination Literature in Christian Perspective』 (IVP); 한국어 번역판, 『상상의 승리』 (성광문화사, 1982). 특히 본서의 제6장에서는 기독교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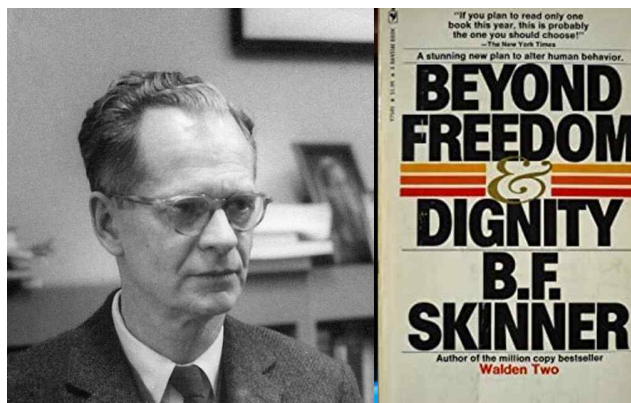
25) 예를 들면 행17:28; 딤후1:12,13을 보라.

문학 작품에 대한 기독교적 의미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면 무엇이 기독교적 문학이 되게 하는가를 생각해 보자. 먼저 문학 속의 기독교적 요소는 형식이나 소재에 있지 않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문학의 소재는 삶의 전 영역, 즉 인간 경험의 전 영역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문학을 기독교적으로 만드는 것은 그 형식과 소재에 있다고 보다는 그들을 해석하는 기독교적 관점 즉, 기독교 세계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작가는 그가 택한 소재나 형식 때문에 기독교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재를 이용하여 결론을 내리는 작가 자신의 세계관 때문에 기독교적이 된다. 이렇게 볼 때 기독교 작가는 문학과 예술의 세계에 있어서 기독교적 사물관의 대변자 혹은 청지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 작가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기독교 신앙을 문학 속에서 드러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심리학 - 기본 가정과 방법론의 문제

철학의 분과로 존재하던 심리학은 19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독립학과로 등장하였는데 이때부터 이미 심리학은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자연과학의 방법론은 환원주의(Reductionism), 실험주의, 인과적 설명추구, 조작화, 정량화, 객관화 등으로 특징 지워진다. 이러한 자연과학 방법론을 추구하는 심리학의 실증주의적 경향은 스키너(Burrhus Frederic Skinner, 1904-1990) 등의 행동주의(Behaviorism)에서 절정에 달한다.²⁶⁾ 심리학의 한 분과인 행동주의에 의하면 인간의 심리는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갈 필요 없이 그 사람의 외형적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과학적 방법론은 사고와 반성의 능력이 없이 환경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물리, 화학적 대상을 연구하기 위해 개발된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것이 자연을 연구하기 위해 적용될 때는 문제가 별로 없지만 인간에게 적용될 때는 문제가 발생한다. 인간은 자기에게

26) Burrhus Frederic Skinner, 『Beyond Freedom and the Dignity』 (Hackett Publishing, 2002) - 한국어판: 차재호 역, 『자유와 존엄을 넘어서』 (탐구당, 1994).

부과되는 실험적 조작에 수동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로봇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인격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과학적 방법론으로 도출된 심리학의 결론이 이론적으로 기대하는 설명력을 갖지 못했고 윤리적으로는 피실험자에게 스트레스의 축적과 기만의 위험만을 높였다.

물론 심리학에 대한 자연과학적 방법론의 적용이 인간 심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많은 기여를 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우려하는 것은 이와 같은 적용의 결론이 점점 더 절대화되어 가고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간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적인 심리학자는 먼저 심리학 연구에서 자연과학적 방법론의 적용 한계를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인간의 물질적, 생물학적 측면 외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 즉, 주권성, 내재성, 초월성, 자기반성 및 자기결정력 등을 가진 영적이고도 인격적인 존재로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본질상 타락한 존재로서 인간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²⁷⁾

(4) 교육학 - 교육 가치와 목표를 다시 설정하기

근래 우리 사회에서 끔찍한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흔히 인간성 회복 교육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회복이라는 것은 잃었던 것, 혹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것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교육 일반과 관련하여 볼 때도 교육이란 인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 그러나 놀랍게도 교육철학 분야에서 교육의 목적에 관한 수많은 논란이 있어 왔지만 도대체 아직도 어떤 인간이 바람직한 인간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왜 교육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가?

교육목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역시 교육가치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교육가치 문제는 교육학 연구에 포함시킬 것이냐 빼버릴 것이냐부터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어떤 사람은 그런 논의 없이는 교육을 한 걸음도 진전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될 경우 결론도 없는 형이상학적 논쟁에 빠질 거라고 주장한다. 한 예로 흔히 쓰이는 행동주의 교육의 정의인 “교육은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라는 말속에도 변화의 방향이 모호함은 가치문제를 피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가치 문제의 언급을 회피하는 것은 가치중립(value-free)의 교육을 이룩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가치 즉, 그 시대, 그 국가와 사회를 풍미하는 가치에 의한 교육을 초래하게 된다. 교육의 가치에 대한 언급을 회피함으로 가치중립적 교육을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마치 흐르는 강물 위에서 노를 젓지 않으므로 가만히 정지해 있겠다는 말과 같다.

결국 가치는 인간의 신념과 신앙의 문제이다. 가치중립이나 탈가치적 상태란 있을 수 없다. 그러므

27) Skinner의 책에 대한 반론으로 Francis A. Schaeffer, 『Back to Freedom and Dignity』 (IVP, 1985) - 한국어판: 김원주 역, 『다시 자유와 존엄으로』 (생명의 말씀사, 1995)를 보라.

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교육하거나 교육학을 연구하는 것을 편견이라고 볼 필요가 없다. 이것을 편견이라고 본다면 다른 편견들보다는 얼마나 옳고 훌륭한 관점인가! 그러므로 기독교인 교육자나 교육학자는 기독교적 인간관, 지식관, 세계관 위에서 기독교 교육철학을 수립해야 하며 사회적, 정치적 요구와 가정의 기대 및 경제문제 등의 압력 속에서도 성경적 가치관에 기초한 교육목표를 수립하여 교육현장에서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의 가치와 관련하여 기독교 학교는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육체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 훼손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사고하고 선택하고 창조하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개별성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피조세계에 대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이다. 기독교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인간의 타락한 성품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발현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적 성장과 신앙적 성숙,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이다.²⁸⁾

(5) 경제학 - 성경적 경제원리와 적용

경제학은 인간 사회에서 재화와 용역을 분배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것은 재화와 용역이 생산되는 방식, 또 그것들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분배되는 과정, 그리고 분배되는 과정을 통해 생산자와 분배자들이 이익을 얻는 과정들을 다룬다. 이러한 경제학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적용할 수 있을까? 기독교적인 경제관은 무엇인가?²⁹⁾

무엇이 기독교적 경제관이나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일반적인 태도는 이원론적이다. 즉 성경의 가르침은 영적인 것에만 관련되어 있고 경제생활은 경제 자체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그리스도의 우주적이고 포괄적인 구원의 능력 아래 있다고 하면 이런 이원론적 태도는 비성경적이라 할 수 있다. 카이퍼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간의 전 존재영역에서 만유의 주권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것이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이란 조금도 없다.”³⁰⁾ 특히 그리스도인이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개인의 경제생활은 그의 인생이 무엇을 위하여 그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일종의 신앙고백이라 할 수 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6:21)란 성경 말씀이 여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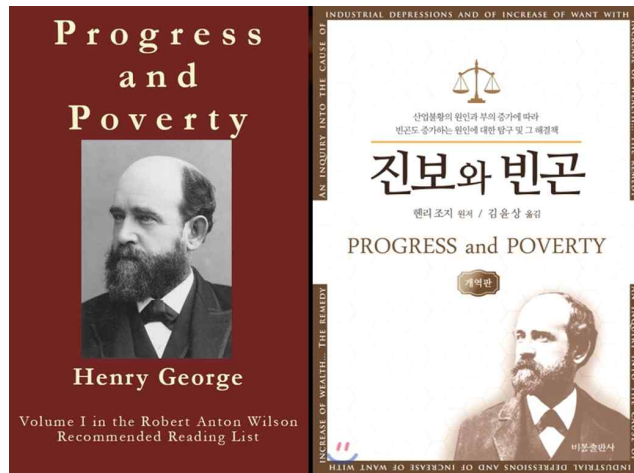
신구약 성경에서 보여 주는 경제원리는 경제윤리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공익, 사랑, 청지기

28) 예를 들면 Nicholas Henry Beversluis, "Major Learning Goals in Christian Education," 『Christian Philosophy of Education』 (Grand Rapids, MI: Christian Schools Int'l, 1971) Ch. 4를 보라.

29) S. Rickey Kamm, "사회과학을 보는 기독교적 관점", 『기독교신앙과 학문』, Arthur Holmes 편 (학생신앙운동, 1992) 20면.

30) "There is not a square inch in the whole domain of our human existence over which Christ, who is Sovereign over all, does not cry, Mine!" from Abraham Kuyper, "Sphere Sovereignty," in Bratt, James D. (ed.). 『Abraham Kuyper: A Centennial Reader』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1998).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제도를 통해 그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경제원리를 가르치셨다. 구약에서 보여 주는 안식년과 희년 제도 및 기업으로서의 토지제도, 취리 금지(레25장), 삼 년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십일조,³¹⁾ 안식년의 산물과 추수 후의 이삭 처리, 이웃 포도원 등에서 음식을 먹는 것,³²⁾ 옷과 맷돌 등의 저당금지 등이나,³³⁾ 신약에서 가난한 자의 구제,³⁴⁾ 부의 자발적 분배,³⁵⁾ 지나친 소비에 대한 자제³⁶⁾ 등은 성경적 경제원리를 보여 주는 예들이다.³⁷⁾



이와 같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경제관의 기초를 요약한다면 인간 존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인간 존중의 원리는 오늘날 경제 이전의 문제, 즉 진보이데올로기에 의해 끌려가는 현대경제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많은 시사를 하고 있다. 사실 현대의 모든 경제생활은 진보, 성장, 효용 등에 종속되어 있으며, 절대적 규범(norm) 대신 오직 진보신앙에 의해 생겨난 현대 사회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처방보다 종교적 처방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학자 슈마허(Ernst F. Schumacher, 1911-1977)는 현대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성경적 해결 방법의 하나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³⁸⁾ 그는 “무엇이 인간을 위해서 좋으냐?”가 아니라, “무엇이 체제의 성장을 위해 좋으냐?”하는 관점 위에서 수립된 현대 자본주의 선진국의 사회 경제 구조는 인간을 병들게 하며, 근본적으로 이러한 체제를 변혁시키지 않는 한 경제적 재난을 면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경제학의 당면과제는 성장이 아니며, 경제이론, 경제사상,

31) 신14:28,29을 보라.

32) 신23:24,25; 레19:9,10; 출23:10,11을 보라.

33) 출22:25-27; 신24:6,12,13 등을 보라.

34) 예를 들면 고후9:9을 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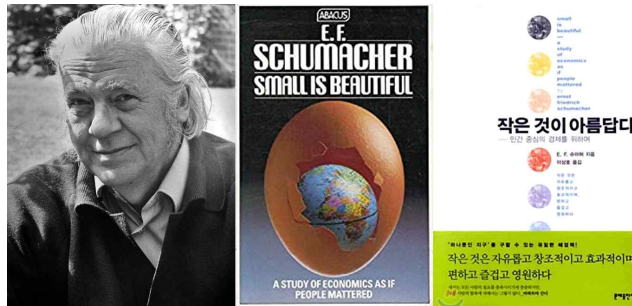
35) 예를 들면 행2:44,45; 4:32-35; 고후8:13,14; 약5:1-5 등을 보라.

36) 예를 들면 고전7:29-31; 딤후6:10,17,18; 벰전3:1-4 등을 보라.

37) Henry George, 『Progress and Poverty』 - 한국어판으로 세 개 정도의 번역이 있으나 김윤상 역, 『진보와 빈곤』(비봉출판사, 2016)이 잘 번역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Henry George의 사상을 잘 소개하는 책으로는 CUP에서 출간한 Frederick Verinder, 『My Neighbor's Landmark』(Andrew Melrose, London, 1911) - 한국어판: 이풍 역, 『내 이웃의 地界表』(CUP, 1996)을 참고하라.

38) E.F. Schumacher, 『Small is beautiful』(1973) - 한국어판: 『작은 것이 아름답다』(전망사, 1980). 이 책에서는 종래의 대규모 경제체제를 비판하고 “인간중시의 경제”(Economics as if people mattered)를 주창하고 있으며 이는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경제학의 훌륭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경제정책의 새로운 요구는 보다 심오한 인간성의 회복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경제학자들마다 경제이론이 다르듯이 기독교적인 경제학자들 간에도 성경적 경제원리에 대한 구체적 이론이나 실천 방법 등에 관한 세세한 의견이 통일되지도 않을 것이다. 슈마허의 주장에 대해서도 나름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성경은 경제원리는 가르치나 경제제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 경제학자는 시대마다, 지역에 따라 성경적 경제원리와 경제윤리에 기초한 적절한 경제이론 정립 및 실천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잘못된 경제관, 경제제도 등을 비판하는 일도 쉬지 말아야 할 것이다.³⁹⁾

(6) 과학 - 과학주의의 문제⁴⁰⁾

16, 17세기, 뉴턴(Isaac Newton), 갈릴레오(G. Galileo), 케플러(Johannes Kepler) 등의 역학과 천문학을 중심으로 일어난 과학혁명 이래 과학에 대한 인간의 신뢰는 급격히 증가해 왔다. 그리스 관념론적 철학으로부터 베이컨(F. Bacon)의 경험주의 철학으로의 전환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과학혁명은 그 후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체계적인 과학적 지식을 축적하게 하였고, 18세기 라부아지에(A. Lavoisier), 돌턴(John Dalton) 등의 화학혁명, 산업혁명, 19세기 생물학혁명, 20세기 현대 물리학의 탄생을 거치면서 인류의 미래에 대한 장밋빛의 유토피아를 약속하는 듯했다. 그러나 20세기의 비극적인 양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 전 인류를 일시에 파멸시킬 수 있는 가공할 핵무기의 개발과 끊임없는 군비경쟁, 근래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등은 종래 과학문명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신학에서는 과학문명의 발달로 천년왕국이 도래할 것이며 그 이후 재림이 있으리라는 종래의 지배적인 후천년설(Post-millennialism)이 전천년설(Pre-millennialism) 내지 무천년설(A-millennialism)로 전환하기 시작했으며, 철학이나 문학에서는 낭만주의적 기풍이 허무주의를 거쳐 실존주의적 기풍으로 바뀌어 갔다.⁴¹⁾

39) 경제윤리에 대한 기독교인의 시각을 다룬 국내 저작으로는 한남대 경제학과에 재직했던 김세열 교수의 『기독교 경제윤리』 (한남대출판부, 1985)를 들 수 있다.
 40) R. Hooykaas, 『The Christian in Teaching Science』 (Tyndale, 1960) - 한국어판, 『과학과 기독교』 (KIVP, 1986). 호이카스는 30여면 정도의 작은 이 소책자이나 자연과학에 대한 기독교인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 과학을 전공하거나 하지 않거나 관계없이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다.
 41) 후천년설(Post-millennialism)은 천년왕국 후 재림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전천년설(Pre-millennialism)은 천년왕국 전 재림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과학에 대한 인간의 순진한 기대는 많이 변했지만 과학의 위력에 대한 인간의 경외감은 끊임없이 증대되어 왔다. 컴퓨터와 전자공학의 눈부신 발달, 우주개발, 레이저의 등장, 통신혁명, 유전공학의 무한한 가능성, 가정, 사무실, 공장의 자동화, 인공지능(AI), 빅데이터의 등장,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역동적으로 연결해 주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도 정보화 사회의 도래 등, 현대 과학문명을 특징짓는 대표적 업적들은 대부분 지나간 반세기 동안에 이룩된 것들이다. 과학적 방법론의 도입으로 인한 폭발적 지식의 증가와 이로 인한 문명의 과학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과학 그 자체에 어떤 신성이라고 할 만한 것을 부여하기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곧 과학주의(Scientism)이다. 왈쉬(Brian J. Walsh)와 미들튼(J. Richard Middleton)은 『그리스도인의 비전』에서 과학주의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⁴²⁾

- 모든 신념들은 경험이나 실험, 즉 과학적 방법에 의해 검증되어야 하며 과학적 방법만이 진리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 계량화된 것만 과학에 의해 알려질 수 있다.
- 과학은 전제가 없으며 객관적이다. 즉, 과학은 주관의 여지가 전혀 없는 순수 객관적인 학문이므로 무전제에서 출발한다.
- 모든 우주는 기계적이며 인과율의 사슬(causal chain)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다.
- 과학은 자기의 고유한 방법론을 통해 궁극적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 과학적 방법만이 진리에 이르는 참된 방법이므로 다른 모든 학문도 과학적 방법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위의 과학주의의 주장들은 외형적으로 보면 탈가치화, 객관화, 계량화 등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가치와 주관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첫째 주장은 실험주의(Experimentalism)이며, 둘째 주장은 유물주의(Materialism), 셋째 주장은 결정주의(Determinism)이며, 넷째 주장은 진보주의(Progressivism)이며, 다섯째 주장은 방법론적 환원주의(Methodological Reductionism)임을 알 수 있다. 근본적으로 과학주의는 존재론이나 인식론에 있어서는 자연주의(Naturalism)를, 내용에 있어서는 합리주의(Rationalism)를, 정신에 있어서는 휴머니즘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과학주의란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삭감하고 자신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이론을 구축하는 데서 나온 인본주의 이데올로기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인 과학자는 현대인들의 의식 속에 팽배한 과학주의에 대해 특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과학주의는 과학의 결과가 아닌 과학에 대한 신앙이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과학의 가치에 대한 하나의 견해이기 때문이다. 다분히 종교적인 색채, 그것도 기독교 신앙에 반대되는

42) Brian J. Walsh and J. Richard Middleton, 『The Transforming Vision: Shaping a Christian World View』 (Downers Grove, IL: IVP, 1984) - 한국어판: 황영철 역, 『그리스도인의 비전』 (IVP, 1987).

종교적인 색채를 갖고 있다. 과학적 사실들을 슬그머니 비집고 들어오는 이데올로기들을 분별하는 작업도 그리스도인 학자들의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러너(Runner)는 “과학주의의 승리는 기독교 신앙의 패배이며 그 역도 사실이다.”고 했다. 과학주의가 성경과 상치되는 종교적 주장이라 한다면 기독교인 과학자는 과학에서 과학주의 대신 성경적 입장을 정립해야 한다. 그러나 과학주의를 비판한다고 해서 그들이 발견한 피조세계의 흔적들을 무조건 무시하고 반대의 극단, 즉 과학주의에서 맹신주의(fideism)로, 객관적 과학에서 상대주의로 가서는 안 됨을 기억해야 한다.

과학에 대한 성경적 견해는 처음부터 기독교 유신론적 세계관에 근거하고 있다.⁴³⁾ 주의론적(Voluntarism)이고 유신론적인 기독교 유신론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자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롬1:19,20). “오직 어리석은 자만이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시14:1)”고 한다. 성경은 과학이나 과학을 할 수 있는 재능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문화활동의 일부로서의 과학 활동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간주한다(창1:28). 또한 과학의 연구대상이 되는 자연세계는 사탄의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세계이므로 과학적 연구는 피조세계의 자연과학적 측면을 연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인 과학자의 사명은 크게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과학을 이 시대의 새로운 이상으로, 과학자를 이 시대의 새로운 제사장이 되게 하는 과학주의나 기술주의, 그리고 이와 유사한 반기독교적 조류를 비판함으로써 과학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확립해야 한다. 둘째, 피조세계의 자연과학적 측면을 연구함으로써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능력과 신성을 발견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연구된 결과가 인류의 복리를 위해 사용되어 이웃사랑이 실천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8. 기독교적 학문함을 위한 실천적 함의

지금까지 기독교적 학문을 위한 몇몇 예들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고도로 분화된, 아니 파편화된(fragmented) 현대 학문의 현장에서는 위와 같은 원론적 차원의 조망만으로 기독교적 학문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딜레마에 직면하는 그리스도인 학자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적 학문함의 실천적 함의는 무엇일까? 학문의 동기, 내용, 목적, 태도가 기독교적 가치를 내포해야 하지만 그리스도인 학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첫째, 파편화에 대한 의도적인 저항이 필요하다. 과도하게 분화된 현대 학문의 세계에서 파편화된 학문의 세계에서 작은 파편 속에 매몰되는 것은 학문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잃어버리는

43) R. Hooykaas, 『Religion and the Rise of Modern Science』 (Scottish Academic Press) - 한국어판, 손봉호, 김영식 역 『근대과학의 출현과 종교』 (정음사, 1988). 근대과학이 기독교적 배경을 가진 유럽에서 발생한 것은 기독교적 정신 자체가 근대 과학정신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라는 본서의 주장(특히 제2장 참조)은 Robert K. Merton의 이름을 따라 지은 머튼 명제(Merton Thesis)와 더불어 과학에 대한 기독교의 긍정적 영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첩경이다. 그리고 파편화된 학문의 작은 분야 속에 빠지는 것은 학문활동이 이상승배 행위가 될 가능성을 높인다.

비록 자신의 학문의 넓은 세계에서 특정한 작은 주제를 가지고 씨름 하더라도 자신의 연구가 하나님의 창조세계 내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퍼즐조각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극도로 세분화 되고 폭발적으로 지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좁은 분야에 대한 거시적 조망을 갖는다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거시적 조망은 학문세계에 있는 동료들과의 협동연구의 가능성을 높이고, 연구주제 설정부터 연구결과 응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진보주의나 물질주의와 같은 세속적 이데올로기가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데 중요하다. 이 때 이 거시적 조망의 가장 중요한 틀은 기독교 세계관이다.

둘째, 작금의 뉴노멀 시대의 비대면성과 4차 산업혁명의 이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현재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뉴노멀 시대를 맞아 기독교적 학문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간 지리적 장벽이 무너지고 있고, 언어적 장벽도 낮아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인 AI와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은 바벨의 저주를 빠른 속도로 극복하는 듯이 보인다.

한 예로 작년 2월에 모임이 불가하게 되면서 1년에 두 차례 모이던 창조론 오픈 포럼이 매달 모이는 창조론 온라인 포럼으로 전환되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했지만 횡수가 늘어나면서 참가자들은 편리함에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시간만 조정하면 강사와 참여자의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았다. 현재 창조론 온라인 포럼에는 북미주와 한국에 계신 분들이 주로 참석하지만 호주, 일본 등에서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언어적 장벽도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다. 필자는 몇 년 전 구글 번역기가 처음 시작될 때를 기억하고 있다. 처음에 번역기를 사용했을 때는 저런 정도의 번역으로는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빅데이터가 빠르게 쌓이기 시작했고 AI와 클라우드 컴퓨팅 기능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제는 쓸만한 번역에 가까워지고 있다. 아마 오래지 않아 언어를 혼잡시켰던 바벨의 저주는 “난 곳 방언으로”(행2:8)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는 오순절의 축복으로 바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그리스도인 학자들 간의 국제적 교류를 매우 활성화시킬 것이다.

셋째, 앞에서 기독교적 학문함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였지만 기독교적 학문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학문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실행하려는 의지이다. 기독교적 학문함이란 결국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학문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자체가 기독교적 학문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학문적 추구가 가치중립일 수 없음이 분명하다면 기독교적 학문연구는 정당하고 필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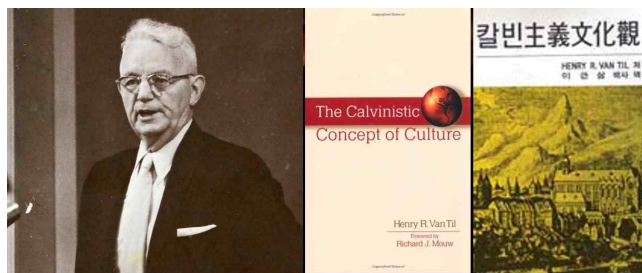
학문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조망의 가장 큰 적은 학문에 대해 치우친, 혹은 잘못된 조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 학문을 하려는 노력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기독교적 접근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모든 학문은 가치중립적이고, 따라서 기독교적 가치와 무관하게 학문함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학문을 가치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그 시대를 지배하는 세계관을 따라 학문을 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적 학문함의 반대는 비기독교적 학문함이 아니라 기독교적으로 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이나 의지가 없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조차 학문연구는 학문 그 자체의 논리만으로 수행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결국 학문활동의 근거에 있는 세계관적 헌신을 간과한 것이다. 산이 그곳에 있으니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학문활동은 학문이 그곳에 있으니 학문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연구 속에 내재된 세계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반성 없이 다만 "Publish or perish!"라는 오래된 학문세계의 비정함에만 쫓겨 연구를 한다면 그것은 비기독교적 학문함이며 나아가 기독교적 학문함에 대한 가장 큰 저항이다.

9. 맺는 말

끝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떠나가면(필연적으로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으므로) 파멸에 빠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는 비단 종교적, 도덕적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 영역에도 적용된다. 근대 이후 계몽주의자들은 객관성 추구라는 미명하에 학문세계에서 하나님이 서실 자리를 없애버리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그래서 오늘날 대학에서는 “학문적”이라는 말이 “비종교적”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에도 불구하고(롬11:36) 오늘날 대학은 비기독교적을 넘어 반기독교적 기풍으로 충일해 가고 있으며 학문의 세계에서 기독교학자들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기독교학자들은 학문 영역과 학문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기독교적 학문함의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독교적 학문함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며,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다.



반틸(Henry R. Van Til, 1906-1961)이 말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다.”⁴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기독교 학자들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기 위해(합2:14),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 위해(고후10:5)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할 때 해 뜨는 곳에서 해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도 여호와와 이름이 크게 될 것이며(말1:11), 그 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슥14:20).

44) Henry Van Til, 『The Calvinistic Concept of Culture』 (Grand Rapids, MI: Baker, 1972) p.1 - "We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정성구, 『칼빈주의 사상대계』, 302면에서 재인용.